

“정성운동”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최영인* · 김수연* · 황상익*

I. 서론 : 연구의 배경, 목표와 방법

북한은 자신들의 ‘전인민적 무상치료제’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제도로 내세우는데 주저함이 없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옛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권이 붕괴할 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소련 및 동유럽권과는 내용이 다른 사회주의임을 강조하였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상, 정치, 경제 등에서 붕괴된 동유럽 사회주의와는 질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전반적 무상교육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정휴양제도’ 등 사회보장시책들을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무상

치료를 당과 국가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제도 중의 하나로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과도기적 성격과 공산주의적 성격을 함께 지니는 사회주의 사회라고 규정짓는다.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성격은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의 물질문화 생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와 교육만큼은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통한, 필요에 의해 분배받는 공산주의적 성격을 반영한 선진적인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¹⁾ 이것은 국가가 완전한 공산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1)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여러 사회, 경제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고 개인의 책임을 이전보다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과 의료만큼은 여전히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적 물질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을 위한 사회적인 혜택을 시행하여 보다 높은 사회주의를 지향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방 이후 ‘민주주의보건제도’, 전쟁 당시 ‘전시보건제도’,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건설시기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거쳐 1958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는 것과 함께 개인의사들이 모두 국가보건기관에 ‘인입’되도록 하는 단계를 밟는다. 그리하여 북한은 1960년 2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실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²⁾ 사회주의보건제도로써 면모를 갖추게 된다.

북한은 사회주의보건제도를 확립한 이후 그것을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예방의학적 방침, 전반적 무상치료제 방침과 함께 보건일군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시책을 전개한다. 우선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실시를 위한 대책으로 시, 군 인민병원과 리진료소들을 확충하거나 새로 만들고 더 많은 의사들을 배치하는 한편 ‘의사담당구역제’³⁾를 실시하고 전문병원을 새로 만들었으며 의학과학연구기관을 늘리고 제약의료기구공장을 현대화하도록 힘썼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방의학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노동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위생

방역사업을 비롯한 질병예방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히 하고 우월성을 발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분석이다.

즉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을 위한 보건정책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시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자세와 태도를 인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상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보건의료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의 부르조아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일련의 사상교양사업을 전개하고 1960년대부터는 ‘정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대시킨다.

이 정성운동은 북한에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으로 겪게 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더욱 강조된 보건의료인의 덕목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약품이 고갈되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사망하게 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성은 북한의 언론을 통해 더욱 자주 보도되었다.

북한 보건의료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덕목으로 일컬어지는 ‘정성’이 환자의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의료행위자의 덕목 또는

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이 계속 지켜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외부 시각도 있다.

2)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

3) 1990년대 이후에는 ‘호담당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눈에 띈다.

윤리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보건의료인들의 사상투쟁 과정에서 전개된 ‘정성운동’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정성운동’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언론보도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북한 보건의료인들이 사회주의적, 인간애적 치료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환자에 대한 ‘지극정성치료’가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고, 그 실제적인 예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성치료’가 북한 보건의료에서 일상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북한 보건의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의 내용은 북한 보건의료인들의 ‘정성치료’와 대중적 ‘정성운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지 사례들을 통해 검토하고 북한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바람직한 덕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연구방법은 북한의 <로동신문> 등 문헌자료와 북한 출신⁴⁾ 의사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정성운동’의 형성 및 전개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정성치료’의 실례를 파악한다. 인

터뷰는 대부분 조사자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유 진술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구체적 질문과 재확인 등으로 개입하였다.

II. 북한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원칙과 특징⁵⁾

1972년에 제정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는 보건의료의 원칙이 다음과 같이 천명되어 있다. “국가는 전체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⁶⁾ 이러한 조항은 199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새 헌법에도 ‘의사담당구역제’가 추가되었을 뿐 충실히 계승되고 있다.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⁷⁾

1998년의 새 헌법에는 이밖에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

4)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자유 북한인’ 등 대신 ‘북한 출신’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5) 이 글에서는 철자법, 띄어쓰기 등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김일성, 김정일 등에 대한 과도한 예찬은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생략할 것이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48조. 1972년.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6조. 1998년.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⁸⁾와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정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⁹⁾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정신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1980년 4월 3일에 만들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사업을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든 노동자들이 무병장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¹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법은 북한 보건의료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마

련되어 병 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정책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된다.”¹¹⁾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 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한다.”¹²⁾

“국가는 주체적인 의학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조건과 수단물을 원만히 보장하여 치료예방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 과학화한다.”¹³⁾

“국가는 보건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사상의식과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만든다.”¹⁴⁾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보건 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킨다.”¹⁵⁾

이렇듯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과 더불어 의사담당구역제, 동의학(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병행, 대중의

8) 위 헌법 제72조.

9) 위 헌법 제77조.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1조. 1980년.

11) <인민보건법> 제2조.

12) <인민보건법> 제3조.

13) <인민보건법> 제4조.

14) <인민보건법> 제5조.

15) <인민보건법> 제8조. 그러나 역설적으로 법이 제정된 1980년대 이래 외부와의 협조와 교류는 더욱 단절되다시피 한다.

보건사업 참여 등이 북한 보건의료의 기본적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¹⁶⁾

첫째, 북한은 무상치료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는 1947년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 1953년의 전반적 무상치료를 거쳐 1960년에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라 함은 그 대상이 모든 국민이라는 뜻이며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무의리(無醫里)의 해소, 의사담당구역제 실시, 의료기구 및 의약품의 현대화 등을 통해 의료봉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에 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해산방조, 왕진치료, 요양치료 등도 무상이며 불구자에게 주는 교정기구비, 보철비, 요양소를 오가는 여비 등 부대경비까지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¹⁷⁾

그러나 무상치료제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내용면에서는 완전한 무상치료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¹⁸⁾

주민들의 월 급여에서 1%를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매달 10% 정도의 공과금 징수 내용에 치료비 항목을 포함시켜 의료비용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비용 공제와 북한 당국의 재정능력 등으로 미뤄 무상치료제는 변형된 의료보험제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평양방송도 “전체인민들에게 무상치료를 실시한다는 것은 국가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¹⁹⁾

북한 주민 한 사람이 무상치료제에 따라 평생 국가의 지원을 받는 치료비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전을 기준으로 평균 5천 22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완전한 무상치료를 실현했다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북한에서 그것을 실현하였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실상과 내용의 보다 면밀한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북한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더불어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무상치료제가 보건의료 발전의 담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

16) 이 부분은 황상익(1991년). 서평-조선보건사. 과학세대 1권 : 78-85쪽 및 황상익(2001년). 북한의 보건의료. 과학과사회 창간호 : 44-59쪽을 참고하였다.

17) 승창호. 인민보건사업경험.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6년, 38-74쪽.

18) 북한 출신 의사 최O성의 증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 교실 비디오 자료에서 인용.

19) 2002년 11월 1일 방송.

20) 연합뉴스 2002년 11월 13일자. ‘7·1 조치’ 이전 근로자의 생활비(현물지급을 제외한 임금)가 대체로 월 10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할 때 북한이 자부하는 무상치료제의 의의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이 인터뷰한 북한 출신 의료인 및 일반인들의 증언과 국내외의 자료들을 보건대 “무상치료제 원칙”은 적어도 1990년대 이래로는 원래의 의미를 크게 잃은 듯이 보인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예방의학적 방침의 관철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김일성의 담화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일찍이 각급 단위에 위생방역소를 설치하고 위생지도위원회를 두는 등 위생방역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의식주생활에 대한 위생지식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 예방대책, 간단한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건지식을 보급하는 위생선전계몽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위생 일군’의 체계적 양성을 꾀해 왔다고 한다.

또한 생활 및 노동환경 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공해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는바 노동보호용구의 무상공급²¹⁾, 노동보호 감독의 강화, 유해노동을 무해노동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의 전개 등을 통해 산업보건사업을 강력히 전개해 오며, 공장을 분산배치하고 공장 지구와 주민주거지구를 분리시키고 이 사이에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탁아소와 유치

원의 설치, 산전산후 150일의 유급휴가, 100% 병원분만 보장 등을 통한 모자보건사업도 북한이 주장하는 예방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에서도 예방의학적 방침에 따른 의학 교육을 실시하며 예방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북한당국은 주장하고 있다.²²⁾

주로 사적자본의 논리에 따라 보건 의료의 운영되는 자본주의사회에 비해 사회주의사회의 의학은 상대적으로 예방의학 중심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건의료의 총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를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이고 협동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질병의 특성상 예방의학만을 통해 모든 질병을 해소하고 완전한 건강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자칫 예방의학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불균형한 보건의료 발전도 초래할 수 있을 텐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때 북한 사회가 내세우는 예방의학의 의미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의사담당구역제이다. 이것은 의사가 일정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면서 외래로 찾아오

21) 광원들이 머리보호장구(헬멧)도 없이 탄광 갱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김O숙 등의 증언은 북한 당국의 공식적 주장을 무색케 한다.

22) 승창호. 인민보건사업경험. 75-109쪽.

는 환자를 진료할 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구역에 나가 위생보건,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인데 1964년부터 실시되었다.²³⁾ 해외동포들의 방문기 등을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거주지 생활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거주지담당제와 생산 활동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직장담당제로 나뉘는데 이를 통일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도시에서는 시구역병원과 그 아래의 종합진료소를 기본단위로 대체로 주민 4천명이 기준이며 농촌은 리인민병원(진료소)이 기본단위로 인구 3천명 안팎이 기준인데 이를 의사 2-10명이 담당하고 있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전문과 의사를 주축으로 실시하며 기타 전문과 의사는 담당구역 사업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²⁴⁾

북한 사회는 이러한 의사담당구역 사업의 논리와 이유로 보건기관의 책임의식 강화, 고정적인 의료진에 의한 계속적 관찰, 예방사업과 위생선전교양사업 전개상의 이점 등을 들고 있다. 이 담당구역제는 원칙상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타성과 관료주의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²⁵⁾

넷째로 ‘동의학(東醫學)’과 ‘신의학’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원칙이다. 즉 북한에서는 의료사업과 활동, 의학연구와 교육에서 동의학(전통의학, 요즈음에는 ‘고려의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과 신의학(근대서양의학)의 협조와 결합을 강조하는데 중앙과 각 도에 동의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인민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에 동의과를 설치하며 그밖에 독립적인 동약국과 동약방을 많이 설치하였다. 그리고 의학교육에서 동의학을 정규교과목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동의학을 예방과 치료의 많은 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동의학이 예방에 기본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동약이 오랜 기간 써도 몸에 별 해가 없고 효력이 떨어지는 일도 없으며, 신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에 주로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에 의거하고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동의학의 방법상의 약점 또한 인정하고 있

23) 1964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선중앙년감> 등 북쪽 문헌들과 리O자, 김O숙 등 북한 출신 의사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6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실 비디오 자료에서 인용.) 그리고 이 제도는 일시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10여년의 세월을 두고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24) 송창호. 인민보건사업경험. 110-130쪽.

25) 북한 출신 의사 리O자는 의료인들이 담당구역의 보건 상태를 상부에 보고하는 경우 허위 보고가 많다고 증언한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이중보고 체계를 가동하는데 일선 실무자들끼리 담합하여 대응하기도 한다는 증언도 덧붙이고 있다.

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동의학의 과학화 작업을 깊이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 1958년 의학과학원 산하에 동의학연구소(지금은 고려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는 동서의학의 장점을 취해 신의학적 진단과 동의학적 치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스스로도 동서의학 접합에 어려움이 많다고 평가한다.²⁶⁾

북한 보건의료에서 동의학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것을 강조하는 배경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에서는 동의학을 우리 민족이 지난한 투쟁과정 속에서 얻어낸, 스스로에 맞는 의학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역사 인식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이 주요한 배경이며 이것은 북한사회의 근본뼈대를 이루는 주체사상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동의학의 예방의학적인 특성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북한 사회의 고립과 경제난이다. 즉 어떤 연유에서든 외국과의 교류가 제한되어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양약(洋藥)을 생산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 돌파구로 동의학이 강조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동의학을 골동품 보존 같은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적’으로 재창조하려는 모습이 뚜렷한데 이 점은 우리가 마땅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주민들의 활발한 보건사업 참여이다. ‘모범위생군’ 창조운동, 유해동물잡기 운동, 전염병 박멸투쟁, 유해노동의 무해노동화 운동, 공해감시사업, 문화위생운동 등의 다양한 보건사업이 광범위한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약생산 사업, 지역 보건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탁아소 및 병원의 건설 등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사회는 이러한 대중참여의 일반적 원칙으로 ‘집단주의’를 들고 있다.²⁷⁾

모든 주민이 보건의료의 측면에서도 객체가 아니라 주인으로 참여한다는 원칙은 대단히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참여에 있어서 과연 주체적인 점이 구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흔히 북한사회를 비방할 때 이야기되듯 ‘강제동원’에 지나지 않는지를 고찰할 때 ‘참여’의 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정성운동

그 집에 며칠 더 있었는데, 원발이 점점 더 썩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오른발도 썩게 썩어들어가더라구요. 이래선 안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남양병원에 저를 입원시켰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는 약도 없으니까 제대로 일

26) 승창호. 인민보건사업경험. 131-159쪽.

27) 승창호. 인민보건사업경험. 91-109쪽.

못하겠다고 제게 털어놔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발이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해지는 거예요. 입원실에, 그 추운 냉방에서 혼자 입원을 하니까 이 손마저 동상에 걸렸어요. 그때는 제가 죽을 각오를 했거든요. 이렇게 골 아프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 그런데 제가 다시 살겠다는 생각을 한 데에는 정말, 병원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의 신세가 많았어요. 비록 약은 없어도 치료는 못해 주어도, 선생님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밥을 날라주시고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제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선에서는. 제가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조선 사람들 사이에 인정이 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²⁸⁾

이 이야기는 한 북한 출신 여성의 증언이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살던 이 젊은 여성은 국경지역이 먹고사는 형편이 낫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강추위가 몰아치던 1998년 11월, 두만강변의 남양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다고 한다. 초만원 기차 속은 발

들일 틈도 없어 거센 바람과 눈보라를 고스란히 맞아가며 승강대에 매달려 갔고, 게다가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기차가 움직이는 것보다 서 있는 때가 훨씬 많아 일주일이나 걸린 탓에 두 다리와 발에 심한 동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언과 같이, 입원했던 남양의 병원에서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에까지 동상이 생겼다. 고등중학교 시절 장거리경주 선수였다는 이 여성은 결국 중국에 가서 양쪽 다리와 손가락 몇 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과 병원이 제 구실을 거의 못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여성의 구체적인 체험담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반면, 그 여성이 전한 북한 의사들의 모습은, 체제가 다른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기도 한다.

한 북한 출신 여성 의사는 1960년대 의학대학에 다닐 때 이식용 피부가 필요한 경우 조직적합성을 확인한 뒤에 자신의 피부를 떼어준 적이 몇 차례 있다고 증언했다.²⁹⁾ 거기에 대해 그런 행위가 북한에서 칭송의 대상이냐고 묻자, 그 의사는 의학대학생이나 의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며 따라서 그 사실을 감추느라 힘들었다고 대답하였다. 남한 사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

28) 북한 출신 이명O의 증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비디오 자료에서 인용.

29) 함흥의학대학 출신 의사 이O자의 증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비디오 자료에서 인용.

라 그러한 행동이 정말로 자발적인 것이냐고 거듭 묻는 질문에 도리어 이상하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³⁰⁾

3.1 정성운동의 발단

1959년 4월 24일 김일성은 전국보건일군회의에³¹⁾ 참석하여 보건의료인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동무들의 토론을 들어 보니 엄청난 현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의사들은 환자를 몇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인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아주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 얼마 전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도 비판하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치도 천리마운동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 또 일부 일군들은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위생사업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협동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³²⁾

당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의료부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투쟁의 결과로 북한에서는 이후 유일사상(김일성사상)체계를 세우게 되는데 보건의료 분야와 보건의료인들도 여기에서 비켜갈 수는 없었다. 위의 담화 내용을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대중운동으로 전개했던 천리마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들이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당 사업에 반대하는 일로 여겨졌던 사회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물질적인 제 조건의 변화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 발전이 뒤떨어지는 사정 때문에 보건의료부문에서 ‘부르조아사상청산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분석 하에 보건의료인들 속에서 사상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1959년의 이 전국보건일군회의에서 부르조아사상잔재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보건기관에 당중앙위원회 지도 간부들을 파견해 사상투쟁을 벌인 결과 보건의료인들의 사상개조가 광범위하게 이

30) 여기에 대해 상반되는 소수의 증언도 있다. 즉 집단 중의 가장 약자가 희생자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평양의학대학 출신 여성 의사 김O숙의 증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비디오 자료에서 인용.)

31) 보건의료인들의 부르조아사상잔재를 청산하는 사상개조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김일성이 직접 지시하여 소집된 이 회의는 1959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다.

32) “보건일군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어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13. 259쪽.

투어졌다고 한다.

김일성은 또한 보건의료부문에서 진행되는 ‘부르조아사상잔재청산투쟁’을 사상투쟁에 그치게 해서는 안되고 당시 벌어지고 있던 천리마운동과 결부시켜 보건위생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당시 보건의료인들의 사상개조 사업을 천리마운동과 결합시켜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인들이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되어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인 상(像)과 여러 미담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중요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1960년 11월 13일 홍남비료공장병원에 속살까지 드러나는 3도 화상, 화상면적이 전신의 48%에 달하는 한 소년이 구급차에 실려 왔다. 소년은 기존 의학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었는데, 홍남비료공장병원의 의료인들과 이 병원에 실습 나와 있던 17명의 함흥의학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피부를 술선하여 소년에게 이식하여 줌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은 1961년 2월 청년동맹 기관지인 <민주청년>에 실려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이 기사를 읽고 이러한 행동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생길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치하와 함께 환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도 뼈도 나누어주는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정성운동’을 보건인들 속에 광범위하게 벌여 나가도록 구상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은 2월 13일 홍남비료

공장병원과 함흥의학대학에 치하의 편지를 보내어 ‘정성운동’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김일성은 3월 7일 전국로농통신원열성자대회에 참석한 함흥의학대학병원 간호원을 접견하여 치하하였고, 5월 7일에는 함흥을 방문하여 화상을 입었던 소년을 품에 안고 2·8비날론공장조업식 경축 군중시위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정성운동을 대중적 차원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1961년 6월 7일에 열린 전국보건부문일군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정성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성’이 질병 치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보건일군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끝없는 지성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의사가 환자를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치료사업에 끝없는 정성을 쏟아 부을 때 고치지 못할 병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 보건정책과 함께 보건일군들이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환자 치료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까지도 다 고쳐낸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 경험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환자

에 대한 의사나 간호원들의 육친적인 배려와 정성은 치료에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의료일군들이 환자를 육친의 정으로 사랑할 때 치료에서 자기의 있는 지혜와 기술을 다 내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성의 있는 태도가 환자의 정신상태에 주는 영향도 자못 큼니다. 의사나 간호원이 정성껏 치료하고 간호해 주면 환자들은 더 명랑해지고 유쾌해지며 병과의 투쟁도 더 잘하게 되고 치료효과도 더 높아집니다.³³⁾

이렇듯 김일성은 의사와 간호원의 정성이 환자치료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무상치료제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관건적인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김일성의 논리를 “사회주의사회에서 보건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고전적 정식화 등 보건의 새로운 이론 실천적인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주체적인 보건이론”이라고 규정하고 ‘정성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사실 북한사회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김일성은 이미 1947년 5월 21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한 결론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³⁴⁾에서 당시의 보건의료

에 관한 현안들을 망라하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제시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일군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를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강조하였다.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일군대렬을 확대하고 그들의 기술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일군들을 참다운 인민의 보건일군이 되도록 옳게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료일군들은 철저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일군들이 인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던 일제시기 통치계급의 의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의료일군들이 과거 일제시기의 의사들처럼 돈만 알고 인민들의 병을 잘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땅을 주고 삶의 보람을 안겨준 인민정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들 속에 자본주의사회나 남조선에서처럼 닭이나 잡아주어야 주사를 놓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의료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사들은 무서운 전염병

33)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15. 148쪽.

34) 김일성저작집 3. 282-290쪽

을 앓는 환자들에게도 찾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생명의 위험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그들에게 애국주의사상을 강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의료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병원 의사들을 교양하는 것은 물론, 돈만 알고 인민의 리익을 생각하지 않는 락후한 개인병원의사들에게도 보건사업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며 그들이 인민을 위한 치료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적극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그 뒤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당과 인민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헌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의 집권세력 스스로 북한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맞아 ‘정성운동’이라는 좀더 정형화된 형태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3.2 정성운동의 전개

의사, 구강의사, 고려의사, 간호원, 의료기사 등 북한 보건의료인들이 착용하는 가운(위생복)의 왼쪽 가슴 부위에는 ‘정성’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 글씨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신’ 휘장(뱃지)과 더불어 북한

보건의료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각급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백번 물음에 백번 웃음으로 대답하자” “중환자는 나에게로!”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정성이 명약” “정성이 진짜불사약”이라는 구호가 나붙어 있어 보건의료인들의 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성’의 모범적 사례를 칭송하고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보건의료인들의 정성을 고취하였다.

병원들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나부터 열까지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잘하는데 복종시켜야 하며 그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 환자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의 집중적 표현입니다.³⁵⁾

보건부문 일군들은 당의 보건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였으며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 보건부문 일군들 속에서

35) “병원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5. 300-301쪽.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³⁶⁾

1960년대 초부터 김일성의 발의로 시작된 ‘보건일군 정성운동’은 끊임없이 전당적(全黨的) 전국가적으로 전개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북한 당국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현대적 의학기술을 소유한 우리의 보건일군들 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인민의 충복이 되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며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공산주의적 품모가 높이 발양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붉은 의료일군들은 인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피와 살도, 뼈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바쳐 끓어진 팔다리를 잊고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며 소경이 앞을 보고 병어리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치료예방사업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³⁷⁾

이제는 로동신문 등을 통해 정성운동과 정성치료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자.

3.3 정성운동의 전형

북한의 언론 매체들에는 다음과 같이 정성운동의 전형적인 모습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북한 언론의 특성상 이는 단순한 사실 보도라기보다는 교육과 선전선동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 조직에서는 우선 의료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바로잡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공장이나 기업소에 나가지 않고 주로 병원 안에서 일하지만 현장에 나가 긴장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동무들과 같은 사상적 각오와 혁명적 기풍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짧은 시일 안에 새로운 의료설비들을 자체로 더 보충하게 되었다.

그들은 치료실내외를 병원사업의 정규화, 규범화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렸을 뿐 아니라 동의치료와 신의치료를 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훌륭히 마련하였다.

(...) 오늘 이 병원에서는 한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 집단이 정성을 쏟아 붓는 것이 평범한 일로 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외과의 어느 한 너

36)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8. 173-174쪽.

37) 조선중앙연감 1970. 282쪽.

수술환자에게 외과성원들은 물론 병원집단이 달라붙어 정성을 다했으며 특히 내과간호원 배금옥, 안과 의사 송영일동무들은 남 먼저 자기의 피를 뽑아 넣어주어 그 환자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건강을 예상외로 빨리 회복시켰다.³⁸⁾

11월8일광산병원에는 자랑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자랑은 10년 가까운 기간 단 한건의 의료사고도 없었고 어린이사망률을 영으로 만든 것이다.

이곳 병원 의료일군들이 의료봉사사업에서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성운동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이다.

지난 10년간 11월8일광산병원이 걸어온 길에는 감격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기록되어있다.

환자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는 미저만 하여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거기에는 산모들과 애기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바친 산부인과 과장 강령록 동무를 비롯하여 의사 박선숙, 외과과장 리진수, 의사 우철수, 내과 간호원 조성실 동무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있다.

(...) 그때를 회상하며 그날의 환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불사약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 병원의사들의 정성이야말로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진짜불사약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보건제도의 혜택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심정만이 아니다. 오늘 이곳 광부들과 주민들은 11월8일광산병원을 가리켜 <우리 병원>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³⁹⁾

3.4 예방의학적 방침 관철과 정성운동

북한은 자신들의 보건의료체계에서 특히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예방의학을 앞세운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는 데에 정성운동을 활용하는 모습을 다음의 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장 리상근동무를 비롯한 병원안의 모든 전문과 의료일군들은 외래환자치료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군인민병원들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검진도 하면서 발병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극복대책도 세우고 있다. 복부외과 의사들은 철산, 객산, 선천, 운전 등지에 나가 서해안일대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에

38) “의료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세포군인민병원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1982년 12월 23일자.

39) “인민의 사랑받는 의료일군들. 11월8일광산병원에서” 로동신문 1993년 1월 16일자.

대한 예방대책을 취하였다. 물질 대사와 의사들은 염주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가 자기 분야의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현지 의사들에게 전습시키었다. 또한 순환기내과 의사들은 신의주, 룡천, 구성에 나가 심장혈관계통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해 검진을 조직하고 현장에서 치료대책을 세웠다.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창성과 벽동에까지 가서 눈병에 대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해주면서 군인민병원의사들의 수준을 높여 주었다. 이리하여 도인민병원에 파송되어오는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⁴⁰⁾

이곳 의료일꾼들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 관철에서 위생선전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위생선전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 병원의 외래진찰실과 기다림칸들에 당의 보건정책과 위생지식들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위생 선전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환자들이 널리 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원들을 아침과 오후 치료시작에 앞서 환자들에게 간단한 위생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정상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들과 인민반들에 자주 나가 위생선전사업을 실

속 있게 벌리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민들이 보건위생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병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다.⁴¹⁾

3.5 구역담당제(호담당제)와 정성운동

북한은 구역담당제 수행에서도 정성운동을 활용하고 있다. 구역담당제는 보건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성이 더욱 요구되는바, 그들은 정성운동을 보건의료인들에게 강조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덕천시인민병원 호담당과 과장 유순녀동무는 당세포비서 리문숙동무와 토론한 후 가정수첩견본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의사인 리명숙동무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매식구의 건강상태와 질병관계를 밝히고 건강증진과 치료에 적합한 치료법을 4가지씩 써넣으며 또한 체기와 같이 가정들에서 불현듯 있을 수 있는 병들과 계절에 따라 리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도 써넣을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러주었다. 그리고 견본이 다 된 다음 과안의 의료일꾼들과 함께 여러 날을 밝히며 말은 인민반

40) “의료봉사사업의 중심을 올바로 정하고.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로동신문 1993년 10월 2일자.

41) “신평군인민병원에서” 로동신문 1995년 5월 16일자.

들의 세대들에 가정수첩을 정성들여 만들어 나누어주었다. 이렇게 되니 가정들에서 구태여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⁴²⁾

송학리인민병원에서는 리의 특성에 맞게 지구별로 의사들을 담당시키고 그들이 담당지구의 작업반들과 주민세대에 나가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을 제때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선전을 정상적으로 기동성 있게 짜고 들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있다.

의사들인 차옥순, 김춘성, 최군학동무들은 자기들이 담당한 지구에 나가 작업장에서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그들속에서 위생선전과 치료예방사업을 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 그리고 주민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찾아가 주민들의 건강을 친 혈육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주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병원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인간애와 높은 정성과 의술로 하여 경각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소생 완치되고 만성환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자기 초소에서 혁신

을 일으키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이 고장 사람들의 자랑 속에 꽃피어나고있다.⁴³⁾

3.6 생산과 노동 현장 활동의 강조와 정성운동

노동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생산 및 노동현장이 논리적으로 보건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의 장(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그러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상(像)을 정성운동을 통해 창출하려는 의도를 다음과 같은 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는 출근길에 오를 때마다 탄광병원문앞을 지나기도 하며 의료일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탄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곳 학포탄광병원 의료일군들을 두고 <탄광의 참된 의료일군>, <우리 의사선생>이라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생각나군 합니다.

저는 바로 우리 탄광의 의료일군들이 (...) 환자들에게 바치는 사랑과 정성에 대하여 널리 소개하고 싶어 로동신문사 편집국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

올해에만도 그들은 50종 가까운

42) “정성으로 수놓아온 30여년. 덕천시인민병원 과장 유순녀동무” 로동신문 1994년 2월 7일자. 그러나 저자들이 2006년 5월, 6월 인터뷰한 북한(함경남북도, 평양시) 출신 30, 40대 여성 8명 중 호담당 의사가 집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43) “의료봉사기지를 잘 꾸린 보람. 운전군 송학리인민병원에서” 로동신문 2000년 2월 26일자.

약과 함께 창출고, 백출고 등 여러 가지 보약들을 만들어가지고 탄광막장의 전투장까지 찾아가서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공급하면서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내용으로 한 기동선동대활동도 활발히 벌리고 있습니다.⁴⁴⁾

운전군 제1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은 새해 첫날부터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별로 달려 나가 농장원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전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들은 농장원들과 같이 거름을 지고 눈 덮인 포전길을 걸으면서 위생선전도 하고 설 참에는 현장치료를 정성껏 하고 있다.

동창협동농장에 나간 로정식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겨울철에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 막기 위한 의학상식들을 알려주고 보약들을 공급해주면서 건강검진과 의료봉사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나가고 있다.⁴⁵⁾

3.7 자체적 문제 해결 강조와 정성운동

북한은 권력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문제 해결은 각 지역이나 생산단위에 위임하고(또는 미루고) 있다. 따라서 일선 하급단위에는 과중한 부담이 부과되기 쉬운데, 그러한 문제점을 정성운동을 통해 해결하

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은률광산병원이 인민들의 사랑과 호평을 받는 의료봉사기지로 소문나게 된 것은 최근년간 병원집단이 자력갱생, 각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많은 현대적인 의료 기구와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냄으로써 병원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린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최신의학과학 기술성공에 기초한 새로운 현대적인 의료기구를 치료예방사업에 대담하게 받아들인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최근 몇 해 사이에만도 중독질환, 염증성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치료에 효과가 큰 고압산소치료기와 한 난치의 병에 대한 치료에 널리 쓰이는 전열치료기를 비롯하여 수십 가지의 새로운 의료 기구와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내었다.

물론 이 사업이 저절로 잘되어 나간 것은 아니다. 초기에 일부 의료일군들 속에서 현대적인 의료기구를 병원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때 병원당 조직에서는 현대적인 의료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산부인과의 의료일군들 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방침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 관철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

44) “탄광마을의 참된 보건일군들” 로동신문 1977년 10월 7일자.

45) “현장치료를 짜고 들어” 로동신문 1999년 1월 29일자.

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적극 고무 추동하였다.

이리하여 산부인과에서는 모두가 녀성들이였지만⁴⁶⁾ 새로운 형의 전열치료를 비롯한 12가지의 의료 기구를 훌륭히 만들어 치료예방사업에 리용하게 되었다.⁴⁷⁾

초급당위원회는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모든 의료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가지고 주인답게 일해 나가도록 꾸준히 이끌었다. 지난 기간 외과집단에서 창안 제작한 이동식손소독기와 내과집단에서 만든 액체 및 분말흡입기, 새로운 전침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의료설비들도 바로 이 과정에서 마련된 것들이다.⁴⁸⁾

3.8 동의학(고려의학)과 정성운동

북한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의료자원, 특히 약제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의학을 강조하고 있다. 약초의 채집과 재배, 생산에 드는 막대한 노동력을 정성운동이라는 노력동원 방법으로 충당하려는 모습을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평성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은

약초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병원주변에 4정보의 약초밭을 조성하고 천궁을 비롯한 목향, 황기, 당귀 등 22종의 약초를 심은 그들은 지금 김매기와 비료주기를 실속 있게 내밀고 있다.

마취소생과 의사들과 간호원들을 비롯하여 병리과, 1외과, 산부인과 의료일군들은 매일 첫새벽에 약초밭으로 달려 나와 정성껏 김을 매고 하루 치료사업에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꽃밭처럼 알뜰히 가꾼 이곳 병원 약초밭에서는 효능 높은 약초들이 푸르싱싱 자라고 있다. 한편 대흥군을 비롯하여 녕원, 신양, 강동, 평성 지구들에 나간 약초캐기전투원들도 하루 평균 두세 묶의 작업능률을 올리고 있다. 병원에서는 이미 켜 약초들을 말리우는 족족 가공해서 여러 가지 효능 높은 동약을 만들어 치료예방사업에 리용하고있다.⁴⁹⁾

그러한 약생산에 필요한 약초들을 찾아내고 재배하는데는 품이 많이 들었다. 깊은 숲 속을 헤치면서 약초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도 적지 않은 녀성

46) 북한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사가 거의 여성들이다. 이 기사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어느 정도 전제하는 것으로 읽힌다.

47) “호평 받는 의료일군들. 은률광산병원에서” 로동신문 1991년 6월 11일자.

48) “헌신적복무정신을 따라배워. 대동강구역인민병원 의료일군들” 로동신문 1992년 5월 4일자.

49) “약초를 심어 효능 높은 동약을 생산” 로동신문 1977년 6월 20일자.

과장동무가 주변의 산에서 좋은 약초를 또 하나 찾아낸 것이었다.

그 소식에 병원일꾼들 모두가 기쁨에 넘쳤다. 원장 박용근동무는 즉시 부원장들과 함께 약초뿌리를 더 많이 찾아내어 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당의 보건정책을 관철할 일념으로 단합된 집단이었다.⁵⁰⁾

북한에서 약초 채집은 보건의료인들의 ‘미담’이 아니라 공식적인 의무이고 책임이다. 동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똑같이 연간 30kg⁵¹⁾의 약초를 채집하여야만 한다.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인데도 일반인들도 함께 보는 언론을 통해 그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본받아야 할 정형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3.9 정성운동적 관점에서 본 남한 의료에 대한 인식과 비판

북한은 남한의 의료체계와 의료인들의 행태를 비판,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보도들은 북한의 정성운동적 관점에서 남한 의료를 인식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생명이 돈 저울에 올라 회

50) “자랑 많은 의료집단. 고산군인민병원 의료일꾼들” 로동신문 1995년 5월 16일자.

51) 젓은 무게로 30kg이고 마른 무게로는 3kg이다.

52) “돈 저울에 오른 인간생명. 병마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남조선주민들” 로동신문 1983년 1월

룡당하는 남조선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레사로운 것으로 되어있다. (…)

그러한 실례를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의 30살 난 권용섭 주민의 경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8살 때 무릎에 난 종치의 통증으로 병원에 찾아갔다.

그러나 환자의 병보다도 돈을 먼저 따지는 병원모리배들은 그가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라 하여 하치않은 수술마저도 거절하였다. 소년은 형에게 부축 되어 여러 곳의 병원을 찾아갔으나 랭대와 멸시만이 들썩워질 뿐이다.

어느덧 병은 골수염으로 넘어갔으며 모리배들은 수술비만도 800여 만 원을 내라고 하면서 외면하였다. 하여 그는 청장년이 된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어둠침침한 골방에 엎드려 모진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왔으며 영영 일어나지 못할 기막힌 운명에 놓여있다.

(…) 하여 오늘 남조선에는 결핵과 간염, 위염, 신장염, 심장병, 고혈압 등으로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환자들만도 1,000여만 명이나 되며 이 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한 해마다 수십만을 헤아리고 있다.⁵²⁾

우리 공화국정부의 인민적 시책과는 달리 남조선괴뢰도당은 예산의 많은 몫을 군사비에 충당하여 대량살륙무기를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으며 보잘것없는 보건비마저 해마다 대폭 줄이고 약값과 치료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보건예산과 반인민적인 보건정책의 후과로 남조선에서는 질병이 늘어나고 특히 에이즈 병이 연이어 발생되어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의 판이한 보건실태를 놓고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남녘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무병장수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⁵³⁾

3.10 정성운동에 비추어 본 보건의료인의 정형

북한은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의료기술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술의 발전도 정성운동을 통해 담보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방침을 다음과 같은 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순환기내과

9일자.

53) “우리나라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겠다. 로동신문 1987년 4월 23일자.

의사 권영희동무는 나라의 동의학 발전에 기여할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 최근 준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칠순을 눈앞에 둔 녀의사가 미지의 과학세계를 개척하고 준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은 범상치 않게 지날 일이 아니다.

(...) 막상 공부를 하자고 생각하니 그에게는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9살이었다. 늙으신 시어머니까지 모신 한가정의 주부인 그는 세남매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기어이 대학공부를 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

10여 년 전 치료예방사업에 쓸 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한 산간지대에 나갔던 그는 그곳의 로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그 어디에나 흔한 한 종류의 풀이 심장혈관계통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권영희동무는 만약 그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고 치료에 도입한다면 나라의 동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로 되리라는 생각을 하니 새 힘이 솟았다.

그때로부터 그는 온 나라 그 어디에나 흔한 그 풀을 효능 높은 약재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리론적 해명에 달라붙었다. 치료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과학연구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무척 힘에 부쳤지만 그는 새로운 동약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 심혈을 쏟아 부었다. 생소한 동물실험을 비롯하여 연구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난관을 의지와 열정의 힘으로 이겨나갔다.⁵⁴⁾

중구역인민병원 외과 과장 공훈 의사 신승선동무는 나이 70을 눈앞에 둔 전쟁로병이다.

(...) 환자들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지닌 그는 50여회의 수혈, 30여회의 피부이식수술에 참가하여 자기의 피와 살을 환자들에게 바치였다.

오랜 립상경험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그의 성과는 전국적인 학술토론회와 시적인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어 높이 평가되었다.

신승선동무는 오늘도 젊은 의료일꾼들 못지않게 수술을 능숙하게 하여 환자들 속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⁵⁵⁾

북한 보건의료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의지와 헌신만은 아니다. 고도의 지식과 기술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를 물질이 아닌 사회적 ‘인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북한 사회의 특성이다.

IV. 종합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김일성의 직접 지시로 보건의료인들의 ‘정성운동’을 전국가적·전당적(全黨的)으로 벌여왔다. 사실 정성운동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해방 직후 임시인민위원회 시절부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성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그것은 ‘사상개조’의 성격과 더불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보완 보충하는 의미도 지닌 것이었다.

1958년 무렵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이룬 뒤 북한은 사상투쟁과 사상개조 사업을 더욱 세차게 벌이기 시작했다. 사상개조는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을 비롯하여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사항이다. 즉 공산주의는 물질·제도적 사회주의화와 더불어 인간들의 의식과 행동을 사회주의에 걸맞게 개조하여야만 완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1956년의 반종파투쟁을 계기로 김일성의 유일적 지배권이 확립되면서 어느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사상개조, 즉 김일성주의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성운동도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예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정성

54) “은덕아래 누리는 보람. 평양의학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권영희동무의 사업과 생활에서” 로동신문 1989년 9월 6일자.

55) “미더운 지식인들. 중구역인민병원 과장 신승선동무” 로동신문 1998년 11월 3일자.

운동과 정성치료의 내용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적지 않다. 저자들은 북한 보건의료인들의 자세가 남한 의료인들에 비해 훌륭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총체적 특성과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집단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당연한 모습이 ‘개인주의적’인 남한에서는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자신의 피부를 떼어주는 행위가 북한 의료인들에게는 남에게 자랑할 거리도 아닌 당연히 해야 할 것일 수 있지만, 남한 의료인들에게는 결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며 남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요구해도 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피부 기증에 관한 언급이 많은 것을 화상환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성치료’의 구체적 사례로 ‘선택’되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또 보건의료인들의 헌혈에 대한 언급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수혈체계(혈액은행)의 미흡함을 반증하는 것인 한편 이 또한 ‘헌신’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선택된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익히 보았듯이 남한 사회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의료현실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

사들의 ‘파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그러한 남한 의사들의 관점에서는, 의료현실의 개선을 위한 ‘투쟁’이 북한에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대적 의료설비는 말할 것 없고, 마취제와 항생제, 진통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의 공급조차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그곳의 의료인들이 저항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들의 당연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의료인들의 헌신과 정성이 정말 자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중의 가장 약자가 ‘희생자’로 선택된다는 예외적 증언은⁵⁶⁾ 제쳐놓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인간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강요하는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인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성운동을 둘러싼 북한 사회 내부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피를 환자에게 넣어준 외과과장을 질책하는 병원장의 모습에서⁵⁷⁾ 그러한 점을 살필 수 있다. 해마다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성의 모범적 사례를 칭송하고 대

56) 평양의학대학 출신 여성 의사 김O숙의 증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비디오 자료에서 인용.

57) “보건일군의 영예와 책임감. 단천시 제2인민병원 외과 과장 천창섭동무” 로동신문 1990년 11월 3일자.

중적으로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정성운동이 보건의료인들의 사상성을 강화하여 김일성유일체제에 걸맞은 보건의료인을 만들어내는 역할과 더불어 예방의학적 방침, 구역담당제(호담당제) 실시, 동의학(고려의학)과 신의학의 조화 등 북한 보건의료의 핵심 요소들을 관철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작용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들을 생산과 노동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며, 중앙이 아닌 각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기제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체제에 순응토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

북한 당국은 “의료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일군들 속에서도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기풍이 확립되었다”⁵⁸⁾라고 정성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건의료인들을 고무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끊임없이 보건의료인들을 비판하고 정성운동에 더욱 나설 것을 고무하고 있다. “지금 보건부문에서 병원관리운영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병원들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벌려놓고 치료사업을 잘하지 않고 있으며 지어 정규생활을 구실로 병원에 찾

아온 환자들을 제때에 보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의사, 간호원들은 환자에 대한 정성도 부족하고 로동행정규률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들의 관리상태도 매우 한심합니다. 병원들에서 치료실과 입원실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물자관리도 잘하지 않아 귀중한 의료설비들과 의약품들을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⁵⁹⁾ ‘인정’과 ‘비판’이라는 양날로 북한 보건의료인들을 보건의료 현장에 ‘참여’케 하고 ‘동원’하는 메카니즘을 잘 보여준다.

북한 당국도 스스로 자인하듯이 북한 의료체계의 물적 토대는 크게 파괴되어 그들이 그토록 내세워 온 ‘무상치료제’도 상당히 훼손된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데에는 정성운동이 적지 않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성운동은 일종의 사회적 안전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지나친 혹평일지 모르지만, 북한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역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색인어 : 정성운동, 북한,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인(보건일군), 정성치료

투고일 2006. 5. 12. 심사일 2006. 5. 15. 심사완료일 2006. 6. 10.

58) 조선중앙연감 1969. 263쪽.

59) “병원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5. 299쪽.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Devotion Movement on the Health Care in North Korea

CHOI Young-In*, KIM Soo-Youn*, HWANG Sang-Ik*#

Since the early 1960s, North Korea has conducted 'devotion movement' under the directorship of Kim Il Sung across the nation. As a matter of fact, the movement was not a novel invention at all. When North Korean Temporary People's Polity was established in 1946, North Kore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devoted care of health personnel. It meant to reform the people's thought and mind along with complementing the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ought reform was not a peculiar phenomenon observed in North Korea only. It was particularly stressed out among communist countries, including the Soviet Union. However any other communist country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ought reform. Devotion movement should be viewed as part of this process.

As shown in many cases, the extent and degree of devotion movement and care are beyond our imagination, which does not intend to mean that North Korean health personnel's attitude towards patients is superior to the counterparts in South Korea. Indeed human being's behavior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taking account of society in general.

The question can be raised as to whether or not North Korean health personnel's devoted care is really voluntary. To put aside the testimony that the most powerless group in a society can fall prey to victims, if social environment,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s action on the people's thought and mind even in a subtle way and thus influence one's decision power, it is hard to highly evaluate the devoted care in North Korea. Moreover it seems like that the internal conflict exists surrounding devotion.

In conclusion, I think that North Korean devotion movement has enforced health personnel to reform their thought and mind to adapt to North Korean regime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North Korean Labor Party to realize essential constituents of its health system, in such a situation in which essential medical supplies are severely lacking. But it seems like that it plays reverse action to develop sound North Korean health system.

Key Words : Devotion Movement, North Korea, Health System, Health Personnel, Devoted Care

**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8 Yongeun-dong, Chongno-ku, Seoul 110-799, Korea*

Corresponding Author, hwangsi@snu.ac.kr